

서울시, 전국 최초 동물복지 실현 앞장

서울 내 반려동물 100만 마라... '동물돌봄 체계' 혁신안 발표 내장형 동물등록칩·입양보험료 등 지원 "문화 품격 높일 것"

서울시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의 몸 속에 칩을 넣고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 20만원 내외를 1년간 지원해준다.

또 유기견 중증치료를 공휴일·야간시간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 치료기관'도 24시간 운영한다.

이 같은 방안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에 사는 반려동물이 100만 마리에 이르는 만큼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돌봄 체계' 혁신안을 발표했다. 3대 중점분야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생명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통체다. 27개 세부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의 반려동물은 약 100만 마리로 4년새 20만여마리가 폭증했다. 10가구 중 2가구(19.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만 8200여 마리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했고 23.5%가 안락사 됐다. 동물인원도 매년 4만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동물 없도록...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

시는 먼저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 마리, 총 12만 마리에 지원한



다. 시민들은 이달 말부터 1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여곳에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유기견 중증치료를 공휴일·야간시간 응급치료를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 치료기관'도 최초로 지정해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이를 통해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의 생존율을 높이고 입양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치료기관은 올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 2023년까지 2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해준다. 보험료는 만세 기준 평균 20만원 내외로 구성해 동물 상해 및 질병 치료비 뿐만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등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한다.

시는 향후 고양이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 고양이 입양 시민에게도

동물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한 유기견은 시민봉사자 가정내 일대일 임시보호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보호기간인 20일이 지나거나 입양여건이 어려운 동물은 민간단체와 3월부터 입양행사를 진행해 시민참여 입양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여기에 자치구 지역 입양센터를 강동·서초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한다.

그동안 반려견이더, 동물복지지원센터, 반려동물교육센터로 구축한 동물복지인프라도 서울 전역에 확대 추진한다. 도시개발지역의 길고양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보호·유기예방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동물갈등 줄여 올바른 동물 돌봄문화 조성

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이웃간 동물갈등은 줄이기 위해 동물복지시설과 반려동물 교육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동물원, 수족관 관리 개선으로 올바른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반려견이더'를 4개소에서 올해 10개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 25개소로 확충한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마포구 1개소에서 권역별 4개소로 늘려 동물복지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무료 정기교육도 4월부터 서울시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대폭 확대해 개체 수를 조절해 시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동물의료서비스를 다 음달부터 지원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1000마리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시설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 정서적 안정과 생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물매개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51개 시설을 방문해 540여명을 대상으로 1200회 매개 활동을 실시했다. 2023년까지 연 1500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0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은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 시민봉사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내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은 모두 확충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는 이제 동물을 보호 대상이 아닌 대도시에서 함께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동물 공존도시'를 구현해 세계 주요 도시로서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시



잠실야구장 그라운드 성능 개선

노후잔디 11년만에 전면 교체...MLB사용 토사 등 28억 투입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3일 2019프로야구 잠실 개막전을 앞두고 약 28억원을 투입해 야구장 시설물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후잔디 교체 등 그라운드 성능개선 작업이 완료됐다.

2007년 2월에 설치된 노후 잔디가 11년만에 전면 교체됐다. 홈플레이트와 내야 구간에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사용 중인 토사가 깔렸다. 홈플레이트 후면 경사도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최소 보장수명(약 3000시간)이 초과돼 효율이 저하되고 조도가 떨어진 야구장 조명타워 램프(48개)가 전체 교체됐다.

그 결과 야구장 조도가 내야 48%(1600lx에서 2500lx), 외야 52%(1300lx에서 2000lx) 향상됐다.

시는 야구장 외곽 위험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CCTV 108대 외에 고해상도 폐

쇄회로(CC)TV 60대를 야구장 안팎에 추가로 설치했다.

1루·3루 관람석 6000여석이 전면 교체됐다. 관람석 2층과 중2층은 철재 난간이 강화유리로 교체됐다. 관람석 통로와 계단 바닥이 정비됐다.

시는 "관람석 2층과 중2층의 노후 철재 난간을 시인성이 확보된 강화유리 난간으로 교체해 그동안 철재 난간의 시야방해로 입장권을 판매할 수 없었던 좌석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며 "관중·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박영준 소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프로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19 프로야구 시즌에도 많은 시민이 잠실야구장을 찾아오셔서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시

서울교육청, 28일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청문

최종 결정까지 약 2주 소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청문절차가 오는 28일 진행된다.

1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 서울교육청에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가 열린다.

민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청문은 서울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변호사가 주재하고 한유총 관

계자와 서울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참석자를 3명 이내로 안내했지만 몇 명이 올지 모른다"며 "참석하는 숫자 만큼 교육청에서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문이 끝난면 주재자는 결과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며 서울교육청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교육청은 청문 후 최종 결정까지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스시

서울광장에 먼지 줄이는 잔디 깎다

한달간 잔디 뿌리내림 기간 거쳐 내달 27일 개방

서울시는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며 훼손된 서울광장 잔디를 걷어내고 20일까지 새 잔디를 심는다 고 19일 밝혔다.

시는 서울광장 잔디를 전담해온 숙련된 서울시 인력 300여명을 동원해 폐잔디를 반출하고 지반을 정리

한 후 전면(면적 약 6450㎡)에 잔디를 심는다.

시는 폐잔디 반출과 지반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먼지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광장 외곽부에 울타리를 설치했다. 잔디품종은 '켄터키블루그래스'

다. 이 품종은 추운 겨울을 잘 견디며 사계절 푸르고 촉감이 좋다.

켄터키블루그래스는 여름에는 주변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지면의 온도를 높이는 등 온도 조절 효과가 있다. 일부 잔디가 훼손되더라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밖에 시는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이 봄의 따뜻함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광장 분수대 주변 화단(총면적 65㎡)과 광장 주변 화분 92개에 제라늄, 꽃양귀비, 리벤다 등 꽃 1만5000본을 심는다.



시는 잔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1개월간 이용객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화 기간을 설정한 뒤 다음달 27일부터 광장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뉴스시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